

고규홍의 '나무 생각'



하늘과 바람과 별을 따라 몸을 바꾸는 나무들

나무는 바람 따라 구름 따라 제 살 곳을 찾아 흘러 다니다가, 한 번 머무르게 된 자리에서 자기만의 삶의 방식으로 별다른 변화 없이 수국이 살아간다. 물론 나무도 못 생명체들과 마찬가지로 눈에 도드라지게 드러나는 때가 있기는 하다. 하지만 거개의 나무는 오랜 시간을 두고 바라보아야 그 생명 안에 든 깊은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꽃이나 단풍의 경우 짧은 순간에 드라마틱한 변화를 드러내며 사람의 눈을 끌기도 하지만, 대개의 나무는 보일락 말락 할 정도로 천천히 제 멋을 드러내는 것이다.

중국에서 들여와 국내의 몇몇 정원에서 심어 키우는 원예식물 가운데 '삼색참죽나무'라는 아주 특별한 나무가 있다. 세 가지 빛깔을 가진 참죽나무라 해서 붉은 이릅이다. 세 가지 빛깔 가운데 플라깅고로 불리는 홍학의 깃털 빛깔을 꼭 닮은 진한 분홍색이 유난히 아름다워 '플라깅고 참죽나무'라고 부르기도 한다. 시간을 두고 살펴보면 삼색참죽나무는 매우 기발한 아름다움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번에 알아챌 수 없는 기발함인데, 시간을 두고 여러 차례 찾아보아야 한다. 적당한 시간 간격으로 나무가 천천히 보여 주는 변화는 놀랍다. 아주 천천히 펼치는 한 편의 미술이라고 해도 될 법하다.

가을에 잎이 되고 새 봄에 잎 나기 전까지 삼색참죽나무는 불품없는 나무에 속한다. 즐기기가 다량게 수컷

는데, 옆으로 난 가지가 별로 없어서 빼죽한 꼬챙이와 다를 바 없다. 특별할 게 없는 낙엽성 나무다.

하지만 봄꽃 피었다가 떨어 즈음이 되면 비로소 삼색 참죽나무는 마술 쇼를 펼치기 시작한다. 특히 삼색참죽나무의 새로 나는 잎에는 빨간 빛깔이 선명하게 오르며 잎자루까지 붉은 빛이 감돈다. 이때의 붉은 모습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답지만, 이진 나무가 보여 주는 마술 쇼의 서막일 뿐이다.

보름쯤 지나면 붉은 기운이 얼어지는 기미가 드러난다. 잎의 빛이 본격적으로 바뀔 차례다. 변화의 조짐을 보이던 붉은 잎사귀는 난데없이 노란색으로 바뀐다. 엄밀하게는 아이보리색이다. 생뚱맞다. 변화는 극적이다. 짐작하기 어려운 색깔로 잎의 색깔을 바꾼 것이다. 다시 보름 넘게 삼색참죽나무의 잎은 노랗게 봄을 보낸다.

그러다가 햇살이 따뜻해지면 나무는 또 한 번의 변신을 시도한다. 언제 붉었고, 언제 노란빛이었는지 싶게 시치미를 뚝 떼고 여는 나뭇잎처럼 초록색으로 바뀐다. 초록빛 안에 가득 담은 엷록소로 여름 따가운 햇살을 받아 광합성으로 양분을 모을 채비에 나서야 하는 나뭇잎 본래의 역할을 재우려는 것이다.

빨간색에서 분홍색을 거쳐 짐작하기 어려운 정도의 노란색이었다가, 종내에는 평범한 초록빛으로 바뀌면서 삼색참죽나무가 벌이는 변신의 마술 쇼는 마무리된

다. 삼색참죽나무의 마술 쇼를 온전히 감상하려면 적어도 한 달 이상은 걸린다.

더 흥미로운 사실이 있다. 이 나무는 아무데서나 세 가지 빛깔을 뚜렷하게 드러내며 아름다움의 마술 쇼를 펼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충청남도 태안반도의 천리포 지역이 삼색참죽나무의 아름다운 변화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곳이다. 물론 다른 지역의 식물원 수목원에서도 이 나무를 가져다 키우는 곳이 없는 건 아니다. 그러나 다른 곳에서는 천리포 지역에서처럼 잎사귀 색깔이 선명하게 바뀌지 않는다는 데에 놀라움이 있다. 더 많은 실험과 연구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현재까지의 조사 결과는 그렇다.

삼색참죽나무의 마술을 가능하게 한 건 천리포 지역의 하늘과 바람과 구름 그리고 달과 별의 조화다. 생태학적으로 이야기하면 나무가 서 있는 지역의 기온과 공중 습도에 의한 신비로운 변화다. 둘 중 어느 하나만 맞지 않아도 잎 빛깔의 변화는 도드라지지 않는다.

그가 서 있는 자리에 있는 모든 것들과의 완벽한 조화만이 살아 있는 생명을 더 아름답게 한다는 이야기다. 세상의 모든 생명체가 그러하듯, 하나의 생명이 갖는 가장 찬란한 아름다움은 결코 남의 도움 없이 저 혼자서만 이룰 수는 없다. 그런 지극히 평범한 진리를 나무 한 그루의 느릿한 변화에서도 깨우치게 된다.

<나무 칼럼니스트>

의료칼럼

이명



박수연 동신대한방병원 한방 안·이비인 후·피부과 교수

'이명'은 외부의 소리 자극이 없는데도 귀나 머리에 서 소리가 들리는 현상이다. 최근에는 복잡한 사회 환경과 스트레스의 증가, 피로 누적, 고령 인구 증가 등으로 인해 이명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전체 인구의 17% 정도가 이명증으로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이 중 5% 정도는 병원을 찾을 정도로 심한 이명증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그중 1% 정도는 이명증이 너무 심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다고 한다.

이명의 증상은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매미를 비롯한 벌레 우는 소리나 기계의 마찰음, 라디오 주파수를 탐색할 경우와 같은 소리, 자동차 소음 등 비정상적인 소리가 들리는 형태이다. 활동할 때보다 조용한 곳에 있거나 잠들기 전에 증상이 심해져 불면증을 호소하는 환자들도 많다. 만성적으로 지속될 경우 우울증, 청력 감퇴 등으로 진행돼 삶의 질을 크게 해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명은 평소 체력이 약하고 원기가 부족한 사람에게서 많이 발견된다.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거나 갑자기 정신적 충격을 받은 사람, 평소 신장질환을 앓았거나 신장 기능이 허약해진 사람, 특히 일자목으로 목·어깨 근육의 긴장이 심한 사람들에게 많이 나타난다. 감기나 중이염의 후유증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며 기립지고 자극적인 음식, 인스턴트 음식을 과다하게 섭취하거나 과식·과음으로 인해 몸 안에 습담(濕痰)이 쌓여 있는 사람에게도 흔히 발생한다.

한의학에서는 신체적으로 다른 질환이 있을 때는 이에 대한 검사와 치료가 먼저 이뤄지고, 이후 이명의 증상에 따른 약물 치료가 진행된다. 외상성 고막 천공, 삼출성 중이염, 만성 중이염 등에 의한 경우 먼저 그 질환을 치료하고 안정제·진정제 등 약물 투여와 차음법을 시행하는 방식이다. 다만 노인성 난청, 메니에르병, 이경화증, 청신경 종양, 소음성 난청 등으로 이명 난청이 올 경우는 청력의 손실이 동반되기 때문에 치료가 오래 걸린다.

한의학에서는 환자의 증상과 체질에 따른 변증을 통해 이명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침 치료, 약침치료, 부항 치료, 뜸 치료, 한약 치료, 훈증 치료 등을 시행한다. 환자의 증상과 체질에 맞는 맞

춤 한약을 처방하고 침 치료, 약침 치료를 통해 귀 주변 혈자리를 자극하는데 귀 주변 혈자리는 이문·청궁·청와·예풍이 대표적이다.

발병 후 빠른 시일 내에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호전될 확률이 높지만 그 시기를 놓치면 어렵기 때문에 가능하면 치료를 서두르는 것이 좋다.

귀는 몸의 일부분으로 몸의 불균형 상태가 귀에 이명이라는 증상으로 표현된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귀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를 관리하고 치료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규칙적인 생활, 스트레스 해소, 적당한 운동이 필요하고 과음·과식·과로·흡연 등을 삼가며 특히 이어폰과 헤드폰의 과다 사용으로 귀를 피로하게 하는 것은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또한 동의보감에 나오는 안마 도인법을 꾸준히 하면 이명을 개선하고 예방할 수 있다. 집이나 사무실, 이동 중에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동작이다. 먼저 양 손바닥을 뜨거워지도록 마찰해 둘째 손가락과 세 번째 손가락 사이에 귀를 꼭 끼워서 상하로 마찰해 준다. 둘째, 손가락을 귓구멍에 쏙 집어넣었다가 잠시 후에 땡 소리가 나도록 굴러가게 빼낸다. 다음은 귀 윗부분은 위로, 가운데 부분은 옆으로, 아랫부분은 아래로 약간 세계 여러 차례씩 잡아당겨 준다.

ESG 경영으로 지속 가능한 공동체 꿈꾼다

을 위한 풍요였던 것이다.

앞으로의 풍요는 다르다. 지구와 사회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성장에 대한 반발로 '지속 가능한 성장'이 주목받게 된 것이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전 세계가 '일시 멈춤'에 놓이면서, 그간 숨 가쁘게 달려온 경쟁주의에 대한 반성이 크게 일어났다. MZ세대의 등장과 사회적 가치 확산 역시 힘을 더했다. 삶의 터전을 죽여가며 얻는 오늘 당장의 이윤이 아닌, 현재와 미래가 다 함께 행복해지는 방향으로 시야가 확장된 것이다.

이는 광주도시철도공사가 그간 강조해 오던 지속 가능한 성장과도 맥을 함께 한다. 공사는 이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지난 16일 전국 도시철도 최초로 'ESG 경영 선포식'을 갖고 사람과 사회를 잇는 가치 창출을 선언했다. ESG는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한다. 즉 지구를 살리고, 시민의 이익을 지키며, 투명한 연대를 펼치는 새로운 공기업 경영 모델을 제시한 것이다.

그 예로 공사는 도시철도 중심의 생태 교통 조성, 사회적 약자 배려 시스템 구현, 시민 참여 경영 플랫폼 활성화 등 112대 ESG 경영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환경 영향 최소화해 탄소 중립 도시 광주를 구현하고, 지역과의 동반 성장을 통해 포용과 상생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자 한다.

또한 경영의 기원 단계부터 ESG 가치에 대한 고려

가 투입되며, 경영 활동에 대해 시민과 라운드테이블에 둘러앉아 투명하게 소통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돈으로 살 수 없는 광주만의 가치, 내일을 꿈꿀 수 있는 도시철도만의 선택을 시민과 함께 공유하며 이끌어갈 예정이다.

ESG 경영의 진정한 묘미는 이 정책 자체도 연대를 통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데 있다. 하버드 대학의 리베카 헨더슨 교수는 저서 '자본주의 대전환'에서 경쟁사가 나무를 베면 우리 기업도 살아남기 위해 함께 나무를 벨 수밖에 없는 현실을 예로 들며, 개별 기업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없음을 강조했다. 즉, 지속 가능한 성장은 사회 공동체의 공감과 참여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뜻이다.

공사의 노력에 시민의 힘이 더 더해져야 하는 이유다. 작은 실천이 모여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오늘은 자가용을 잠시 쉬게 하고 지하철 역으로 발길을 향해 보면 어떨까. 대중교통 이용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으면서도 큰 기후 행동이다. 또한 공사가 펼치는 사회 공헌과 열린 경영 프로그램들이 시민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도시철도 구현은 시민의 마음이 함께 담겨야만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이따따우 꽃말 '영원한 사랑'처럼,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행복을 향해 달리는 광주도시철도에 시민 여러분의 큰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기고



윤진보 광주도시철도공사 사장

5월 들어 광주 곳곳에 이팝나무가 그리움처럼 피어나고 있다. 연둣빛 햇가지 위에 흰 꽃잎이 소복이 덮인 모습이 봄별을 그린 것 마냥 따스하다. 하얗고 얇은 타원형의 꽃잎은 영락없는 쌀알 모양이다. 때문에 이 꽃이 만개하면 풍년이 들어 이밥 즉 쌀밥을 먹게 된다고 해 이팝나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 탐스러운 꽃을 바라보며, 올 한 해도 우리 광주가 풍요롭고 여유를 기를 소망한다.

한편으로 '이밥'에 담겨 있는 풍요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본다. 기성세대에게 풍요란 오직 많이 갖는 것을 뜻했다. 물질중심주의는 배타적 이윤 추구를 위해 화석연료를 앞다퉈 태우는 경쟁, 즉 파괴적 성장으로 이어졌다. 또한 가진 자와 소외된 자의 갈등, 밀실주의의 팽배를 야기했다.

학자들의 저서명에서 따 보자면 '침묵의 봄' 속에서 '공정하다는 착각'을 품고 달려온 것이 지금까지의 성장이지 아니었나 싶다. 겨우 한 치 앞만 바라보는, 일부만

社說

국가가 '5·18 북한 개입설' 유포 앞장섰더니

80년 5월 당시 외무부(현 외교부)가 5·18 민주화운동 진압에 대한 해외 반응과 홍보 대책 등을 보고하라고 재외공관에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중남미 지역 재외공관들은 5·18이 북괴의 배후 조종에 의한 것이라는 자료를 언론에 배포하는 등 '북한 개입설' 유포에 앞장선 것으로 확인됐다.

다불어민주당 운영덕 국회의원(광주 동남갑)은 외무부가 1980년 5월과 6월에 걸쳐 중남미 재외공관에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 및 5·18 진압과 관련된 각국 동향을 파악하도록 지시한 문건을 확보해 그제 공개했다. 해당 문서에 따르면 외무부는 당시 장관 명의로 중남미 지역 공관장에게 "최근 광주사태 및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설립 등 국내 정세에 대한 해당 국가의 반응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당시 주 아르헨티나 대사관은 "현지 유력지가 '광주사태는 북괴의 책동에 의한 것'이라고 보도하고 '국제정치상 한반도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광주사태

를 북괴가 악용할 여지를 경계해야 한다'는 사실까지 내보냈다"고 보고했다. 특히 대사관 측은 언론의 이러한 보도가 "대사관이 현지 언론을 접촉해 이뤄 낸 성과"라며 공적을 내세웠다.

주 멕시코 대사관도 "일간지 및 방송이 대사관에서 배포한 자료에 따라 광주사태가 북괴의 배후 조종에 의한 것으로 보도했다"고 외무부에 보고했다. 이러한 문건 내용은 당시 외무부와 재외공관이 '5·18 북한 개입설' 등 허위 사실을 앞장서서 유포하며 5·18 민주화운동을 조직적으로 왜곡했음을 말해 준다.

당시 외무부의 이런 행위는 국제사회에 권력의 정당성을 홍보하기 위한 신군부적 전략 아래 추진됐을 것이다. 또한 이는 중남미에만 그치지 않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5·18 관련 기록이 담긴 외교 문건에 대한 유력지가 '광주사태는 북괴의 책동에 의한 것'이라고 보도하고 '국제정치상 한반도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광주사태

농어촌 파괴형 에너지 정책은 재고되어야

전남 지역 농어촌 곳곳이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각축장으로 전락하면서 경관 훼손 등 부작용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와 지자체가 이들 사업 허가를 남발하면서 주민과 사업지는 물론 농어촌 공동체가 파괴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화순 동면·동봉·정풍면, 순천 낙안·별량면·서면·삼계동, 장흥 유치 등에서 풍력발전 관련 분쟁이 늘고 있다.

최근 일선 시군이 민간 사업자들의 '산지 태양광 설치 신청'을 반려하자, 대신 농지나 염전을 대상으로 한 태양광·해상 풍력 인허가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게다가 전체적인 민원은 감소하는 추세지만 허가 면적은 과거보다 크게 늘어나면서 농어촌 곳곳이 태양광과 풍력 발전 시설로 급속히 채워지고 있다.

문제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해 농어촌 주민들의 삶이 황폐

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농어촌 파괴형 풍력·태양광 발전 반대 전남대책위원회'가 지난 2월 말 조사한 결과, 전남 13개 시군 38개 지역에서 풍력·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인한 주민과 사업자뿐만 아니라 주민들 간 갈등마저 벌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농어촌 공동체가 갈라지고 농촌 들판이나 어촌의 염전과 어장 등이 파괴되는 등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개발은 부족한 자원과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 하지만 무분별한 허가와 개발에 따른 피해를 고스란히 농어촌이 떠안는 정책은 재고돼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인허가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한편 전국 최초로 신안군이 제정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를 벤치마킹해 발전 이익을 주민과 공유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대통령제를 채택한 국가들은 제각기 여건에 따라 임기를 달리 정한다. 스위스 같은 국은 1년이며, 미국은 4년으로 재선이 가능하지만 3선은 할 수 없다. 7년이었던 프랑스는 지난 2000년 국민투표를 거쳐 5년으로 줄였는데, 러시아는 오히려 2008년 같은 방법으로 4년 임기를 6년으로 늘렸다.

하지만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부분 임기를 4년이나 5년으로 정한 것은 오랜 기간 국가권력을 좌우할 경우 그 부작용을 염려한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5년이지만 재선은 안 된다. 미국과 같이 4년 중임제로 바꾸자는 목소리가 간간히 나오고 있지만 아직 대체로 자리잡지는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줄곧 개혁을 추진해 왔다. 박근혜 정부가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된 뒤 국민의 염원을 담은 '촛불' 덕분에 탄생했기 때문이다. 국민 대다수는 개혁에 절대적인 지지를 보냈다. 사법·교육·재벌·부동산 문제 등 국가 체제 전반에 대한 혁신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열 것이라는 기대도 컸다. 민부격차가 커지고, 부모의 지위·부·권력이 마치 계급처럼 승

계되고 있으며, 수도권은 블랙홀처럼 지방의 모든 것을 흡수하고 있는 현실에서 조금이라도 희망을 찾고 싶었을 것이다.

1년 정도밖에 임기가 남지 않은 지금은, 냉정한 평가와 함께 최소한의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는 시점이다. 대통령 본인이 인정했지만 부동산 정책은 분명 실패였다. 투기 세력이 지배해 엉망진창이 돼버린 부동산 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교육·재벌 등의 분야에서 도 과거에 비해 나아진 점을 발견하기 어렵다. 특히 국가 균형 발전에 있어서는 오히려 과거보다 후퇴했다는 점에서 낙제판 평가를 내려고 과언이 아니다.

역사학자 이덕일은 지난 2005년 한국사로 읽는 성공한 개혁, 실패한 개혁에서 개혁의 조건으로 다음 몇 가지를 말했다. 어젠다의 제시, 미래지향적인 방향 설정, 공신의 속칭 및 예외 없는 원칙 적용, 공공선 추구 등이 그것이다. 시간은 별로 없지만 문재인 정부 또한 초심으로 돌아가 이러한 개혁 조건을 하나하나 실천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윤현성 정치부 부장 chadol@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b>金汝松</b> 주필 <b>李洪載</b> 편집국장 <b>崔宰豪</b>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지 1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